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는 대한의학협회 산하 의학회 가운데 가장 먼저 창립된 학회의 하나이다. 현재 그 회원수만도 3천 6백명이 넘는 거대학회로 그동안 선배 의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창립이후 외형상으로는 내면적(학문적)으로 가족의 발전을 이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 학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학회의 연혁과 현황, 사업실적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46대회장 조용국교수

〈연혁〉 대한외과학회의 효시는 8.15 해방후 1947년 5월10일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결성된 조선외과학회(朝鮮外科學會)이며, 그 다음해 48년 8월15일 제2차 총회에서 대한외과학회(大韓外科學會)로 개명되었다. 외과의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로 의과학 발전 향상에 기여하고 인격도야와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학회회칙 및 임원 선출이 이루어져 초대회장에 경성대 백인제(白隣濟)교수가 추대되고 전성관(全聖寬)교수가 간사로 선임되어 초창기 학회 기

반구축에 힘썼다. 그후 초대회장 백인제교수로부터 현 46대 조용국교수에 이르기까지 총 39명의 역대 회장과 26명의 자문위원이 원로로서 외과학회 발전에 계속 봉사하고 있다.

47년 초기 외과학회 창립시에는 외과학분야 전부와 마취과의까지 외과학회 회원으로 포함되었으나 의학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56년 5월26일 정형외과가 독립학회로 분리되고 동년 11월 마취학회, 61년 3월 신경외과, 66년 5월 성형외과, 그리고 68년 2월 흉부외과가 각각 독립하여 모학회로부터 분과하였으며 현재는 순수한 일반외과의료만 구성된 외과학회로 존재하고 있다. 학회 운영은 초기에는 회장-간사제에서 차차 학회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회원의 증가로 인하여 61년부터는 효율적인 학회운동을 위해 임기 3년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회제로 운영하다가 88년부터는 평의원-이사제(平議員理事制)의 체제로 바뀌어 오늘의 외과학회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황〉 1)회원:초창기(1947~52) 회원수는 1백20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1994)는 3천6백명에 이르는 거대학회

가 되었다.

정회원만 2천7백명

회원의 종류는 명예회원, 평생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의 4종류가 있으며 정회원은 60년도부터 실시된 전문의제도에 의하여 전문의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전문의만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50~1백50명 내외의 정회원이 배출되고 있다. 94년 현재 정회원의 수는 약 2천7백명이고 준회원(전문의과정 이수중인 자) 9백여명으로 전체 회원수는 3천6백명에 이르고 있다.

2)학회기구:학회는 회장-이사장-총무제의 기본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평의원회(2백여명의 중견회원으로 구성)의 의장으로서 학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를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실제 학회운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이사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학회기구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조영국 △부회장:손기섭, 황일우, 김광태 △이사장:주상용 △총

醫協산하 최초로 47년 창립...초대회장 白隣濟박사

무:장석균 △이사:최용만, 박용현, 김상준, 유희, 윤충, 강남부, 문상은, 황의호, 배원길, 김종근 △감사:이광수, 고석환, 김충배

3)학회기금 조성:학회 창립이후 학술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학회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66년부터 학회 운영경비 지출의 억제, 미납회원의 회비납부 독려, 평생회비제 도입 등 실무진의 끈질긴 노력으로 초창기 2백50만원의 학회기금이 현재는 약 8억여원으로 예금되어 있으며 이제는 이 기금의 이자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제반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학회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90년 학회 주관으로 위암(胃癌), 유방암(乳房癌), 간·담도췌장암(肝膽道脾腸癌) 연구회의 3개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젊은 외과의의 국제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를 위한 지원금, 학술상상금의 증액 등 활발한 학술활동, 연구비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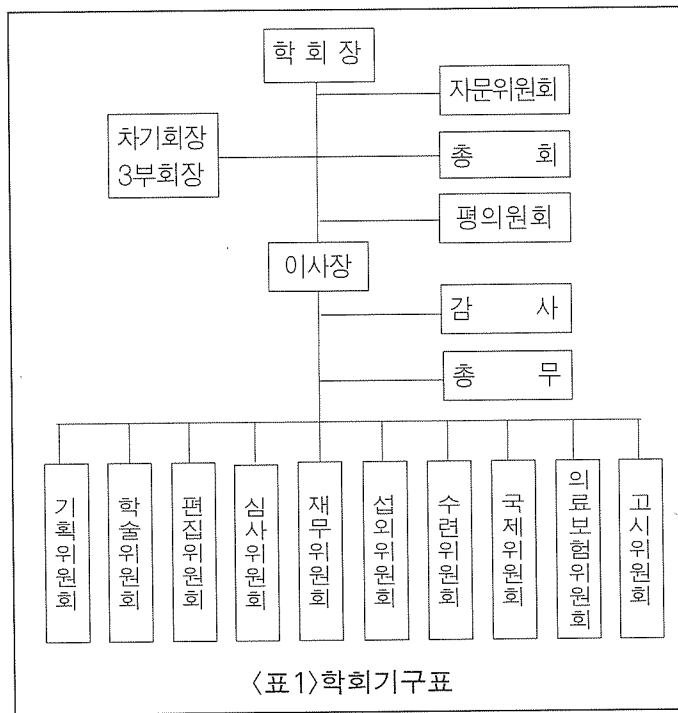
봄·가을 나눠 학술대회

<학술활동> 1)학술대회:우리학회는 창립 이후 매년 학술대회를 실시했는데 74년까지는 연 1회 시행하였으나 75년 이후부터는 춘·추(春秋) 2회로

늘었으며 춘계 학술회의는 지방(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전주)에서, 추계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현재까지는 춘계 학회 19회, 추계 45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92년도에는 학술대회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대회일자를 춘계 2일, 추계 3일로 하루씩 늘렸으며 참가회원수도 1천여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학술대회 내용을 보면 우선

매년 5~6명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의학자를 초청하여 춘추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특별초청강연은 67년 2월 Ochsner교수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미국·일본을 위시, 8개국에서 40명의 연자들이 강연하여 한국외과계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과학 연구논문의 제고를 위해서 58년부터 외과 각 영역의 권위자로 하여금 특정

제목에 대해서 실험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하게 하는 숙제보고제도(宿題報告制度)를 83년까지 시행하여 외과학발전에 기여하다가 각 대학별로 연구실이 설치되고 연구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전의 숙제보고제도는 없애고 대신 회장 강연제도를 신설하여 회장임기를 마치는 해의 학술대회에서 그간의 연구업적을 종합해 보고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84년 박용철회장의 급성복증의 강연을 위시하여 백낙완, 김춘규,



<표 1>학회기구표

일반연제로서 각 분야에 걸쳐 (위장관, 유방, 간담도췌장, 소아외과, 내분비 기초의학, 대장항문병) 춘계학술대회는 1백50편의 논문이 제출되어 이 가운데 학술위원에 의해 엄선된 50여편의 연제가 구연(口演)발표되며 추계대회때는 3백50~4백편의 논문제출에 1백50~1백80편이 발표된다.

김형진, 장선택, 홍선희, 김광연, 김수태, 김진복, 허경발 회장들의 전문분야별 강연은 매 학술대회때마다 가장 절정을 이루며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학문적 감동을 주고 있다.개업회원과 수련의를 위한 연수강좌는 매년 5~6개 제목을 선정하여 중견 교수들로 하여금 실시하여 의학 전반의 이해와 동

현 회원 3천6백여명...기금8억으로 연구비 지원

시에 최신의학의 지식을 습득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 목적으로 근년에는 비디오발표회와 포스터발표회를 92년 추계학술대회때부터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 학술상: 젊은 수련의들의 학문적 의욕을 북돋이주기 위하여 매년 그 전해에 발표된 논문중 우수논문 1편을 학술위원회에서 엄선하여 상금과 함께 학술대회장에서 포상함으로써 학문적 긍지를 느끼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1965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26명의 수상자가 있었다.

3) 학회지: 의과학회지는 58년 12월 창간하여 62년까지 연간, 계간으로 발행되다가 62년 이후에는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처음 1천3백부를 발행하다가 차차 증가하여 92년에는 2천6백부를 발행하였다.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전문위원별로 내용을 엄밀히 검토, 엄선된 논문에 한해서 게재되며 게재탈락률이 10%에 이른다.

4) 국제학술활동: 57년 범국제외과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Surgeons)에 처음으로 일부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한국분회를 결성한 이후 수개의 국제학회에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 회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석수나 국제학술지 발표논문수는 아직까지 너무 저조한 형편으로 앞으로 국제외과학회의 참여 및 활동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의 국제외과학회 가입현황은 <표2>와 같다.

학술발표내용 임상중점

<사업계획>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외과학회는 창립 이래 전회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학회로 발전시킨 것은 더없이 다행한 일이었으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되고 내실있는 학회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회로서는 더욱 분발하고 연구 정진하고자 하는 바 당면한 몇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대회의 개선과 발전이다. 학술발표내용을 좀더 임상과 관계있고

유용한 내용으로 전개하여 전회원 특히 임상개업의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증대되고 외과의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외과의의 자질 향상으로 학회를 통한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외과의가 되고 우리 자신의 학문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유능한 외과의가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과학회의 가장 취약부분인 한국외과의 국제회에 적극 노력한다. 서울대학교 김진복교수(CICD 한국지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6년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소화기외과학회(CICD)의 개최를 계기로 유관한 국제외과학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유능한 젊은 외과의들의 국제학회의 논문발표 및 대회참가를 학회차원에서 적극 지원,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윤 충<경희대 의대 교수/일반외과>

<표2>국제외과학회 가입 현황

가입학회	가입년도	가입자
International Society of Surgery(ISS) Societe Internationale Chirurgie(SIC)	1985~87	학회부회장, 현 한국지회장 김진복 외 70명
Collegium Internationale Chirurgie Digestivae(CICD)	1986	한국지회장 김진복 외 80명
International College of Surgeons(ICS)	1956	한국지회장 이용각 외 회원
Asian Surgical Association(ASA)	1983	한국지회장 김진복 외 60명
International Gastrosurgical Club(IGSC)	1988	회원 15명
East Asian CICD(Korea, Japan, China)	1987	회장 김진복(1989~1992) 외 1백명
Asia Pacific Federation of Cancer Research and Control(APFOCC)	1973	한국지회장 김진복(1985~87) 외 약 3백명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urgical College(IFCS)	1992	전회원